

## 해외 언어 · 문화연수 후기

|      |                                      |
|------|--------------------------------------|
|      | 2022 동계방학 단기 해외언어·문화연수               |
| 연수기관 | 영국 Burton & South Derbyshire College |
| 연수기간 | 2023. 1. 9. ~ 2023. 1. 27.           |
| 연수자  | 경찰행정학과 고은혜                           |

없이 시간을 보내며 대학 졸업을 앞둔 저에게 색다른 경험을 주고 싶었을 때, 어학연수는 재학생으로서만 경험해볼 수 있는,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해외연수를 갑작스레 준비하던 상황에서 지원자 중 여자는 저 혼자였기에 걱정도 앞섰습니다. 하지만, 같이 합격한 오빠들이 어학연수가 끝날 때까지 잘 이끌어 주었고, 그 덕분에 어학연수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면접장에서 만난 오빠와 함께 어학연수 기간보다 일찍 스페인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로써 시차에 미리 적응할 수 있었고, 유럽 문화권에 훨씬 더 녹아들 수 있게 되어 어학연수 및 그 이후의 자유여행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어학연수에서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스페인 여행부터 어학연수까지 이끌고 도와준 오빠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 동계방학 어학연수는 3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오리엔테이션과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루어졌고, 9시부터 12시까지 이루어지는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주 9시부터 15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의 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바탕으로, 비교적 어렵지 않은 문법과 어휘 위주로 진행되어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해주신 튜터분들과 수업시간에 함께한 버디들과도 친해지게 되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의 벽을 허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Zaheer 튜터와 함께한 수업 시간은 매주 기대가 될 정도로 편안한 분위기와 수업의 질, 재미 모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번째 주 금요일에는, 런던문화체험기회가 주어져 단체로 버스를 타고 런던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자유라 저희는 런던에 숙소를 따로 예약하고, 일요일까지 머물면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버킹엄 궁전 교대식부터 빅벤과 런던아이의 야경, 위키드 뮤지컬(데이시트 이용 추천!)까지 기간은 짧았지만 알차게 즐기고 왔던 것 같습니다. 수업이 없는 주말에는 오빠들과 요크를 방문하여 Afternoon tea를 맛보는 등 또 다른 영국 소도시의 분위기를 느끼고 왔습니다. 저희는 주로 Trainline 앱으로 기차를 예매하여 여행을 다녔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을 이용하여 영국 곳곳의 분위기를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갔던 시기에 BSDC 또한, 학기 중이었기에 지나가면서 그들의 학교생활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저희보단 비교적 어린 나이대로 구성되었는데 저희는 교환학생이 아닌 Winter school이었기에 버디를 제외하곤, 한국인들끼리 수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학교 카페테리아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에는 버거킹, 맥도날드와 같은 프랜차이즈를 비롯하여 피시앤칩스, GREGGS 샌드위치 가게, 태국음식점, 카페 ZEN 등 다양한 음식점들이 위치해 있어, 점심을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Tip! 저희가 주로 애용했던 음식은 카페 ZEN의 파니니였고, 피시앤칩스는 카레 소스를 추천하며 태국음식점에서는 팟타이를 추천합니다.)

저희가 묵은 기숙사는 조금 더 큰, DERBY 지역의 Brookside였습니다. 학교에서 40분 정도 떨어졌기에 저희는 아침마다 X38번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저는 한라대생 중 혼자 여자였기에 다른 대학교 친구들과 배정되어 생활하였습니다. 기숙사는 4명에서 한실에 각 방을 썼고, 공용 부엌 겸 거실을 공유하였으며 각자 열쇠로 방문을 잠그면서 생활하였습니다. (Tip! 열쇠는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학생증 목걸이에 같이 걸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부엌에는 주방도구들이 거의 있었지만 젓가락이 없으므로 개인용 젓가락이나 나무젓가락을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밥솥도 없어 시내에 있는 차이나 마켓에서 쌀을 구매하여 냄비밥을 해먹거나 TESCO 마트에서 핫반 비슷한 제품을 사서 먹었습니다.

기숙사 바로 앞에 'Coop'이라는 24시간 운영되는 마트와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더비 시내에 더비온 쇼핑몰, Tesco 마트, poundland, 차이니즈 마켓(chung wah) 등이 있어서 라면 및 간단한 생필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Tip! 마트에 삼겹살이나 목살이 한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로 추천합니다.)

배정된 방에는 침대와 책상, 라디에이터 뿐이라 드라이기, 옷걸이, 세면도구, 수건 등 모두 챙겨오셔야 합니다. 기숙사에 코인세탁실이 있으므로, 종이세제를 가져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국의 겨울은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약 4-5시) 금방 어두워져 주위를 구경하기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번덕이 심한 날씨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걱정했었는데 기숙사에서는 라디에이터 덕분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기숙사 생활할 때 같이 배정된 사람들과 생활패턴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여 어학연수 동안 저의 고민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았다면 훨씬 더 재밌는 어학연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어학연수를 마치고, 약 2-3주 동안 여러 나라(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자유여행하고서 돌아왔습니다.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유럽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오시길 추천합니다. 단조로웠던 일상에 색을 입히는, 인생에서 뜻깊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던 제가, 여행이 진행될수록 자신감을 가지고 즐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듯이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작은 변화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학연수에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남재성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수사진

